



황동하, 무너지는 팀 마운드 일으킨다



KIA타이거즈 황동하가 흔들리는 팀 마운드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KIA는 최근 선발진 붕괴로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시즌 개막전만 해도 제임스 네일과 아담 윌러의 외국인 원투펀치에 양현종, 이의리 등이 버티는 안정적인 선발 구상이 기대됐다. 하지만 이들이 부진이 시즌 초반부터 계속되면서 로테이션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토종 선발진의 버팀목인 양현종은 기복 있는 투구를 반복하고 있다. 그는 현재까지 7경기 2승 3패 33.2이닝 평균자책점 4.81의 성적표를 작성했다. 특유의 이닝 소화력이 많이 떨어졌다.

초반부터 피안타를 쏟아내며 빠르게 무너지는 경우가 잦았다. 최근 한화전에서는 4.1이닝 10피안타 6실점으로 무너지기도 했다.

이의리 역시 강력한 구위를 보여주기도 제구 난조에 발목이 잡혔다. 국내 선발의 미래로 기대받는 그는 최근 두 차례 등판에서 각각 1.2이닝 5실점, 2.2이닝 4실점으로 강판됐다.

올 시즌 전제로 넓혀봐도 8경기 1승 4패 평균자책점 9.00으로 극심한 부진

에 빠졌다. 외국인 투수들 또한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팀 마운드 전체가 불안정해졌다.

가장 큰 문제는 이닝 소화다. 선발진이 초반부터 불넷과 긴 승부를 이어가며 경기 흐름을 넘겨주는 장면이 반복됐다. 자연스럽게 불넷 부담도 커졌다. 선발진 붕괴가 불넷 과부하로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경기 운영이 어려워지

에서 가장 많은 승수다.

황동하의 강점은 적극적인 승부에 있다. 빠르게 스트라이크를 잡고 유리한 카운트에서 싸움을 이어간다. 주자가 나가지도 쉽게 도망가지 않는다. 몸쪽 승부를 피하지 않고 스트라이크존 안에서 계속 싸운다. 실제 롯데전에서는 75개의 공으로 6이닝을 소화했다. 불필요한 불넷을 줄이며 효율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편이다.

이범호 감독 역시 황동하의 투구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 감독은 KT전 이후 “본인 실력을 보여줬다. 중간에서 퐁으로 던질 때와 선발로 던질 때 피칭하는게 확실히 다르다. 템포도 빠르고 본인한테 선발자리가 주어지면서 집중도가 훨씬 높아졌다”며 “구종 자체를 여러 가지 컨트롤로 스트라이크를 잡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개막전만 해도 늘어나도 스피드가 떨어지는 모습이 없었다. 앞으로 계속 잘 던져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범호 감독 역시 황동하의 투구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 감독은 KT전 이후 “본인 실력을 보여줬다. 중간에서 퐁으로 던질 때와 선발로 던질 때 피칭하는게 확실히 다르다. 템포도 빠르고 본인한테 선발자리가 주어지면서 집중도가 훨씬 높아졌다”며 “구종 자체를 여러 가지 컨트롤로 스트라이크를 잡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개막전만 해도 늘어나도 스피드가 떨어지는 모습이 없었다. 앞으로 계속 잘 던져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범호 감독 역시 황동하의 투구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 감독은 KT전 이후 “본인 실력을 보여줬다. 중간에서 퐁으로 던질 때와 선발로 던질 때 피칭하는게 확실히 다르다. 템포도 빠르고 본인한테 선발자리가 주어지면서 집중도가 훨씬 높아졌다”며 “구종 자체를 여러 가지 컨트롤로 스트라이크를 잡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개막전만 해도 늘어나도 스피드가 떨어지는 모습이 없었다. 앞으로 계속 잘 던져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황동하의 활약이 더 의미 있는 이유는 올 시즌 선발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황동하는 지난해 불의의 교통사고까지 겪으며 긴 재활 시간을 냈다. 이후 시즌 개막 전까지 김태형과 5선발 경쟁을 벌였고, 결국 롯데리프 역할로 시즌을 시작했다.

불펜에서의 성적은 좋지 않았다. 11.2이닝을 소화하며 평균자책점 10.03을 기록할 정도로 흔들렸다. 그러나 김태형의 부진으로 선발 전환된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긴 이닝을 책임지며 자신의 장점을 제대로 보여주기 시작했다.

현재 활동하는 대체 선발이 아니라 국내 선발진의 중심 역할까지 맡고 있다. 양현종과 이의리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계산이 서는 토종 선발이다.

그는 스트라이크를 던지고, 불넷을 줄이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선발 투수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잘 소화하고 있다. KIA가 중위권 경쟁을 벌이려 반등을 꾀하기 위해선 결국 선발진 안정이 필수다. 그리고 그 중심에 황동하가 있다.

황동하가 앞으로 활약을 이어가며 새로운 ‘에이스’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황동하의 활약이 더 의미 있는 이유는 올 시즌 선발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황동하는 지난해 불의의 교통사고까지 겪으며 긴 재활 시간을 냈다. 이후 시즌 개막 전까지 김태형과 5선발 경쟁을 벌였고, 결국 롯데리프 역할로 시즌을 시작했다.

불펜에서의 성적은 좋지 않았다. 11.2이닝을 소화하며 평균자책점 10.03을 기록할 정도로 흔들렸다. 그러나 김태형의 부진으로 선발 전환된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긴 이닝을 책임지며 자신의 장점을 제대로 보여주기 시작했다.

현재 활동하는 대체 선발이 아니라 국내 선발진의 중심 역할까지 맡고 있다. 양현종과 이의리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계산이 서는 토종 선발이다.

그는 스트라이크를 던지고, 불넷을 줄이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선발 투수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잘 소화하고 있다. KIA가 중위권 경쟁을 벌이려 반등을 꾀하기 위해선 결국 선발진 안정이 필수다. 그리고 그 중심에 황동하가 있다.

황동하가 앞으로 활약을 이어가며 새로운 ‘에이스’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목송그룹 김지선·김정민, 전국조정선수권 ‘금’

여일부 더블스컬서 7분20초25로 정상 올라 김지선, 경량급 싱글스컬 1위·2관왕 등극

목송그룹 조정팀 김지선과 김정민이 전국 무대에서 금빛 물살을 갈았다.

김지선-김정민은 지난 10일 김해 대동생태체육공원 조정경기장에서 막을 내린 ‘제68회 전국조정선수권대회’ 여자일반부 더블스컬에서 7분20초25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들은 박재연-안예선(군산시청·7분23초94), 김하나-채세현(송파구청·7분25초71)을 따돌리고 정상에 오르며 목송그룹 조정팀의 저력을 입증했다.

김지선은 경량급 싱글스컬에서도 금메달을 추가했다. 김지선은 결승에서 7분54초13을 기록, 최수진(포항시청·8분05초70)과 송수연(포항시청·8분14초41)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김지선은 이번 대회 2관왕에 등극했다.

김정민도 여자일반부 싱글스컬에서 값진 동메달을 보냈다. 김정민은 결승에서 8분06초87을 기록해 김승현(군산시청·7분56초71), 박지윤(송파구청·8분02초



지난 10일 김해 대동생태체육공원 조정경기장에서 열린 ‘제68회 전국조정선수권대회’ 여자일반부 더블스컬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김정민(왼쪽 네 번째)과 김지선(왼쪽 다섯 번째)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39)에 이어 3위에 올랐다.

고등부에서도 광주 조정의 낭보가 이어졌다. 박준호(광주체고)는 남자고등부 경량급 싱글스컬에서 7분33초01을 기록하며 김강후(성서고·7분38초68), 노유원(수성고·7분53초87)을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장강은 목송그룹 조정팀 감독은 “장단 이후 선수들이 빠르게 팀에 녹아들며 대회 성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전국체전 등 앞으로의 무대에서도 광주 조정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송그룹 조정팀은 지난해 10월

광주에서 창단된 여자 실업팀이다. 최근 총주 탄금호배 전국조정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한 데 이어 2026 아시아컵 조정선수권대회에서도 금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수확하는 등 창단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홍명보호, 트리니다드토바고·엘살바도르와 최종 리허설

31일 트리니다드토바고·내달 4일 엘살바도르전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나서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FIFA 랭킹 25위)의 최종 평가전 상대가 트리니다드토바고와 엘살바도르로 확정됐다.

대한축구협회는 대표팀이 오는 31일 오전 10시(한국시간) 트리니다드토바고와, 이어 6월 4일 오전 10시 엘살바도르와 평가전을 치른다고 발표했다.

두 경기 모두 우리 대표팀의 사전캡틴인 미국 유망주 숏트레이크시티의 브리검 영대 BYU 사우스 필드에서 개최된다. 앞서 상대국 협회의 발표로 엘살바도르

와의 경기 개최가 공개된 가운데 날짜와 시간, 장소를 포함한 홍명보호의 평가전 일정도 확정돼 발표됐다.

트리니다드토바고와 엘살바도르는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CONCACAF) 회원국으로, 이번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는 진출하지 못한 국가들이다.

트리니다드토바고는 FIFA 랭킹 100위, 엘살바도르는 102위다. 한국은 두 나라와 모두 역대 한 차례 맞붙은 바 있다. 트리니다드토바고와는 2004년 7월 14



축구 국가대표팀. 사진제공=대한축구협회

일 서울에서 만나 1-1로 비겼다. 엘살바도르와는 2023년 6월 20일 대전에서 열린 평가전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축구협회는 “멕시코 입성에 앞서 치르는 두 차례 평가전을 통해 고지대 환경 적응과 전술 완성도를 끌어 올릴 계획”이라며 “조별리그 1~2차전이 해발 1571m의 멕시코 고지대 도시 과달라하라에서 열리는 만큼 실전과 유사한 환경에서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오는 16일 북중미 월드컵에 나설 최종 엔트리가 발표되며, 대표팀은 18일 사전 캠프가 있는 숏트레이크시티로 출발한다. 대회 기간 사용할 베이스캠프인 과달라하라에는 현지시간 6월 5일 입성 예정이다.

한국시간으로 6월 12일 개막하는 북중미 월드컵에서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공동 개최국 중 한 곳인 멕시코를 비롯해, 체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조별리그 경쟁을 벌인다.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1일자

광주·전남 선수단, 장애학생체전 ‘금빛 행진’

광주, 금 2·은 2·동 3 육상 서예진 등 활약

전남, 금 3·은 4 획득 수영 100m 정우찬 선전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첫날, 광주·전남 선수단이 목표 달성을 위해 순환하고 있다.

광주는 12일 오후 4시 30분 기준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 등 총 7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선전 중이다.

광주 선수단의 대회 첫 금메달은 육상에서 나왔다. 서예진(광주선명학교 고 3년)은 여자 창던지기 F20 고등부에서 17.25m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어 육상 남자 창던지기 F20(고)에서는 강민호(광주선명학교 고 2년)가 27.11m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따냈다.

수영에서는 김하진(광산중 3년)이 여자 자유형 100m S14 중등부에서 1분19초76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남자 자유형 100m S14 초등부 조하준은 1분15초09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역대에서는 김유나(선예학교 중 2년)가 여자 -60kg급 중등부 스쿼트, 데드리프트에서 각각 53kg과 71kg을 들어 올려 동메달 2개를 따냈다. 그 결과 파워리프트종합에서 124kg으로 은메달을 추가했다.

전남에서도 금빛 행진이 펼쳐졌다.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등 총 7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활약 중이다.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여자 창던지기 F20 고등부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서예진(오른쪽 세 번째)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전남 첫 금메달의 주인공 역시 육상에서 나왔다. 황다연(함평영화학교 고 3년)은 여자 800m T20(고)에서 3분4초27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가장 빨리 통과했다.

이어 같은 종목에 출전한 박은서(은광학교 고 2년)가 3분19초51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여자 800m T20(중)에서는 국사량(소림학교 중 1년)이 3분15초01의 기록으로 정상에 올랐다. 같은 종목에 출전한 김상은(순천선화학교 중 3년)은 3분30초62의 기록으로 2위에 만족했다.

수영에서는 정우찬(여수양지초 6년)이 남자 자유형 100m S7~S8(초)에서 2분38초19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건넜다.

황정인(여수충무고 1년)은 여자 자유형 100m S14(고)에서 1분37초61로 은메달을, 성유하(목포제일여고 고 2년)는 여자 자유형 100m S5~S6(중/고)에서 2분54초15로 은메달을 거머쥐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